

## 『대학교육』과 21세기의 한국 대학



송 자  
명지대 총장

우선 『대학교육』지가 통권 100호를 발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대학교육』지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을 계속해서 개혁하여 나가는 데 정

보를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를 하면서 우리의 대학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지를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21세기의 경쟁력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대학에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는 지식사회며, 손으로 일하는 사회가 아니고 머리로 일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교육개혁 특히 대학교육개혁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중국은 '211 운동'이라는 교육개혁을 통해 21세기에 중국을 이끌어갈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중점대학 100개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그 동안 교육개혁을 계속해 오

면서 원론적인 면에서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다. 즉, 열린교육을 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교육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하며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근본적으로 교육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우리의 교육개혁은 아직도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 특히 대학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토의하기 시작하면 조금 파장된 표현으로 한발자국도 내어 디딜 수가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의 대학은 그 동안 많이 변했고 또 계속 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대학의 변하는 속도가 세상이 변하는 것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이다.

첫째로는 우리가 한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의 완전한 자율화'이다. 우리의 대학이 21세기에도 교육부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는 스스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경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우리의 대학이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경쟁력이 있는 선진대학일수록 사립대학뿐 아니라 국립대학까지도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물며 거의 삼분의 이 이상의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사립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대학경쟁력의 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자율적인 경영에는 책임도 같이 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재정적인 책임일 것이다.

대학교육도 투자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등록금만을 가지고 경영하는 대학이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의 보조금만을 기대할 수도 없다. 대학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학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다. 대학의 내부경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외부에서 대학을 도우려는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의 대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18세에서 22세의 젊은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에서, 사회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으로 달라져야 한다. 지식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대학이 이러한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이 변해야 한다.

교육기회의 제공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주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한번 선택한 학과에서 모든 교육과정이 정해져 꼼짝도 못하게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모든 대학이 획일적으로 갈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셋째로는 '다양한 대학'으로 변해야 한다. 모든 대학이 획일적으로 똑같은 교과과정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대학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각 대

학마다 독특한 건학이념을 가지고 교육방법이나 교육과정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흔히 하는 말로 특화되고 차별화된 대학들이 많아야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대학이 실현되면 우리의 대학 중에는 대학원중심이나 연구중심의 대학도 있고 교육중심이나 학부중심의 대학도 있게 될 것이다. 같은 교육중심의 대학들도 교육방법에서 차별화되어 적은 수의 학생들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대학과, 재택수업을 통한 교육으로 대량교육을 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다. 표현 그대로 대학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학모습의 변화는 대학 내부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수험생의 입학제도일 것이며, 또한 지금보다도 더 다양한 입학전형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성적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에서, 대학이 기르려고 하는 지도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는 모집개념으로 변할 것이다. 소위 기업들이 공급자개념에서 수요자개념으로 경영이 바뀐 것처럼 대학에도 마케팅개념이 도입될 것이다. 21세기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이 세상을 이끌어 가게 되어 있다. 우리의 대학도 그러한 대학으로 변해 이 나라와 민족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대학교육:지는 이러한 대학교육의 개혁을 이끌어 가



는데 계속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우리의 고등교육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대학경영의 전문성과 세계적인 감각을 담고 있는 대학교육의 정보교환 그리고 여론 형성의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대학교육』지는 100호의 발간을 계기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겠다' 라고 다짐하기를 바란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실현되려면 대학발전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감한 고등교육정책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 세계수준의 대학을 원한다면 고등교육발전에 관한 세계수준의 생각과 세계수준의 지원과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21세기 사회에서 요구되는

대학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고는 다양성과 수월성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

#### 송자

연세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명지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예술의전당 후원회 회장, 자유기업센터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미국 커네티컷대학(University of Connecticut)교수, 연세대 총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회계원리」, 「관리회계원리」, 「21세기 대학경영」, 「한 가지라도 꼭 부러지면 되는 거요」 외 다수가 있다.